

광양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본격화

올해 초남공단·신금산단 등 총 47억 투입 생활환경숲도...안정적 생활권 제공 최선

광양시가 올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양을 초남공단과 옥곡면 신금산단에 30억원을 투입해 다열·복층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광

양읍 나들목 등 8개소에 16억원을 들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또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옥외 환경개선을 통해 편안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향만물류고등학교

명상숲'과 광양읍 초입부 나들목의 유류공간을 활용한 '생활환경숲'도 조성한다. 전남도립미술관과 연계해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이 지난해 이어 연계 추진되며, 광양역으로 가는 주요 도로변에 동·서천의 벚꽃길과 연계되도록 '명품가로숲길'을 만든다. 광양시 허태규 녹지팀장은 13일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에게 상쾌한 공기와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권을

제공하겠다"며 "도시숲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차단숲 5.4ha에 2만2,000주, 명상숲·생활환경숲 등 도시숲에 약 3만주의 수목을 심는 등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 기관표창을 받는 등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고흥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 50명을 행정 인턴으로 선발하고 13일 군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대학생 행정 인턴제 발대식

지역출신 50명 선발...군청 체험 기회 제공

고흥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 50명을 행정 인턴으로 최종 선발하고, 13일 군청 우주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행정 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다양한 군청 체험 기회를 제공해 공식사회 경험, 지역 정보 체득을 등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 인턴은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23일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한다. 행정 및 현장 업무 등을 보조한다.

행정 인턴에 선발된 한 학생은 "학사 일정으로 장기간 타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고흥에 대해 잘 모르고 지냈었는데, 행정 인턴제를 계기로 고흥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됐고 고흥에 대한 관심도 생겼

다"며 "앞으로 고흥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당초 선발인원이 30명이었으나 대학생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높아 5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물 조성', 'My Job & Future·Art Center 조성',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기업승계 청년 지원',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청년 내일로·마을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예비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 순천시, 도서 10권 전달식

순천시는 13일 "예비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10권의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예비 시민 작가 발굴 프로젝트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사라져 가는 순천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시민들의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2주간 수필과 단편소설 분야의 원고를 접수받아 총 10권을 선정했다. 이후 순천을 둘러보면서 느낀점과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겪은 일 등 다양한 소재의 수필(8편)과 단편 소설(2편)로 출간했다. 자신의 책을 처음 출간하게 된 한 시민 작가는 "삶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책 출판을 이루게 돼 가슴이 벅차다"며 소감을 전했다.



순천시는 최근 '예비 시민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10권의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순천시 제공

출판된 시민 작가의 책들은 삼산도서관 1층 '순천사람들이 쓰고 함께 읽는 책' 코너에 전시될 예정이며, 순천시립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순천시 안문수 도서관운영과장은 "올해도 글쓰기 프로그램, 예비 작가 출판 지원 등 다양한 1인 1책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인문학 소양이 높은 순천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영양 예정이다"며 "인문학 소양이 높은 순천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태양광 발전 시공계약 사기 주의보

순천시 무료 설치·대출유도 등 피해

순천에서 태양광 발전 시공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순천시 승주읍에 사는 A씨(75)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태양광업체의 영업 관리인 B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B씨가 거짓으로 현혹해 금전을 편취하려 했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7일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정부 지원금 등으로 무료로 시공할 수 있으니 평판 대여해 주면 월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을 권유했다. A씨는 "나이가 많아 계약서인지도 모르고 적으라는 대로 적었다"며 "계약이후 후 자재를 가져와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날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비용이라며 20만원을 요구해 B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후 태양광 업체 분사 서류팀이 방문해 시공비 3,600만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아야 하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10월 17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제품을 일부 소비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청약철회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품을 편취하는 것으로 간주,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

영업사원 B씨는 명함에 '한전지원사업'과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제품'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는 정부 태양광사업 참여업체가 아니었다. 계약서도 허술하기 그지없어 계약자의 신상과 서명만 계약자의 필체이고 나머지는 글씨체가 다르고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다. 전력거래계약체결 업무 등을 위임하는 위임장에도 글씨 하나 없이 깨끗하다. A씨는 "대출을 받는 건지 모르고 정부 무상 지원인 줄 알았다. 전기료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시공비가 들 줄 알았으면 계약했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광양세관 제16대 백도선 세관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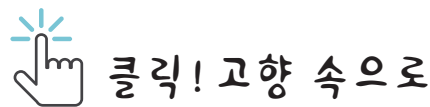
광양세관은 최근 세관 3층 대강당에서 제16대 백도선 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백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미·중 무역 분쟁과 불안정한 중동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 지원에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총기, 마약, 방사능 오염물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불량 수입 먹거리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생활과 사회안전 보호

에 적극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백 세관장은 이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 세관장은 1987년 관세청에 입용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 부산본부세관 감사담당관,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고흥군4-H연합회 회장단 이·취임

고흥군4-H연합회는 최근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역대회장과 농촌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63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임한 제62대 류진호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4-H회원의 긍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신임인 제63대 신길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4-H연합회의 전문기술 향상, 농업경영 및 마케팅 역량강화 등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구례 매천도서관 자연인문학 탐방

구례군은 최근 매천도서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진행한 '자연인문학 강연 및 탐방'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매천도서관은 '공룡·새발자국 화석지 탐사'라는 주제로 김태환 국립대구과학관 이사를 초대해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진행했다. 탐방에 참여한 관내 학생들은 "선생

님이 알려주신 대로 화석을 캐보니 정말 재미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매천도서관 관계자는 "주민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인문학이 이뤄지도록 지역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꾸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순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아사업 발대식

순천시니어클럽은 최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20년 노인일자리아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력교육, 생활안전교육, 실전다짐 등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활동교육도 병행했다. 순천시니어클럽은 올해 공익활동

5개 사업 704명, 시장형 9개사업 300명, 사회서비스형 3개사업 266명, 취업알선형사업 60명으로 총 18개 사업 1,330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순천시니어클럽 유관식 과장은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보성Wee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보성교육청 Wee센터는 최근 관내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보성Wee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방학 중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조력하기 위해 요리 체험, 가족 공예, MBTI 활용 자기이해 집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Wee센터에 와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남근 교육장은 "보성Wee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